

장점마을 사태 'KT&G 책임 촉구'

정현을 익산시장·주민, KT&G 서울 사옥 항의 방문 환경부, 연초박 반입 비료공장 집단 암 발병 인과관계 인정

정현을 익산시장이 KT&G 서울 사옥을 직접 방문해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과 장점마을 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주민들은 KT&G 서울 사옥에서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책임 촉구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KT&G가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한 연초박이 집단 암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KT&G의 책임론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평가 결과 비료공장 가동과 집단 암 발병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해당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담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연

초박을 위탁받아 퇴비로 사용해야 했지만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마을주민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료공장과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나온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방문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해 KT&G와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장점마을 주민들은 KT&G 본사까지 방문해 책임을 촉구했지만 KT&G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G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청년들의 문화소통공간, '청숲' 인기

익산시, 청년 취업 활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익산 청숲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은 물론 문화소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여가활동과 소통·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개관한 청숲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숲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해 취업과 실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진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고 기업 구인정보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이미지와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으며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해 실전 취업 훈련을 할 수 있다. 청숲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소통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소도구 필라테스와 보컬트레이닝, 캘리그라피 등 5가지 강좌로 구성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과 창업 스테디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모임과 공연, 강연 등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도 청년들의 감성에 맞는 공간으로 설계했으며 다목적 조성 검사 등을 통해 진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활동 공간인 청숲이 활성화된다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군산시,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실시 방역 추진상황 공유 거점소독초소 24시간 운영·차단방역수칙 안내관 설치 등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추가 의심신고가 이어지는 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주재:장·차관) 주관으로 매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실시해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또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을 유지하고 매일 농장 출입구 및 주변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는 군산시 재난대책본부에 운영해 비상근무를 확대했으며,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긴급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실시, 돼지열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장별 공무원 담당관 운영 및 양돈농가 진입로 생석회 살포 확인,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및 축산농가 행사 금지 홍보 등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시는 또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동우 앞에 거점소독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밀집사육단지(서수양돈단지 12호/2명매치)에는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돼지를 사육하는 관내 22농가에 소독약품 3톤, 멧돼지 기피제 90포를 배부했으며, 생석회 30톤을 공급해 농가 진입로 등을 도포하도록 했다. 농장 출입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수칙 안내관을 설치해 방역의식을 높여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에 힘쓰도록 홍보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며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내외에 철저한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10월부터 월별제한 없이 연속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월별제한 없이 판매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9월분 군산사랑상품권(지류)이 조기에 판매 마감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에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를 재개하기로 하고 10월부터는 월별제한 및 중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월 초에 상품권 품질우려로 구매자가 집중되면서 상품권 판매로 인한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상품권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병행 발행할 계획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인 '지역 상품권 착(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계좌연결이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원격결제도 가능해 가맹점주가 '지역상품권 가맹점' 앱에서 상품등록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가맹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상품권 착(CHAK)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가령 학부모들이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역 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가맹대상 8,399개소 중 5,300(63%)개소가 등록되었고 읍면동별 가맹점 개별 방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및 결제방식 교육 등으로 모바일가맹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장기)는 오는 28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소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20년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및 자원봉사자들의 화합 운동회

장기자랑, 자원봉사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체험부스 운영, 센터 20년 역사가 담긴 사진전시회, 사전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엄장기 이사장은 "익산시 9만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2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의 20년은 시민이 주가 되는 자원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기관 표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 농가 부가소득 창출 기여

군산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농부의 식품공장'이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25~27일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농촌진흥청 지원계정으로 추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농부의 식품공장'이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6개 부처 균형발전사업 68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군산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에 이르고, 지역 내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년도에 농업인 공동이용 제조시설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확대해 농업인 가공 거점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공급 기반을 구축해 완성도 높은 푸드플랜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농부의 식품공장'이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산시, 지역 수제 맥주 특화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가 수제맥주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군산맥주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 생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원료로 하는 수제 맥주 양조, 영업장 조성을 통해 수제 맥주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제 맥주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19년도 2차 목적예비비 5억원을 확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군산시 금암동 소재 (구)수협창고 1층을 활용해 수제 맥주

영업장을 조성하고 양조장비를 구축하는 등 수제 맥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제 맥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수협창고에는 1층 수제 맥주 영업장(위생행정과)과 수제 맥주 체험·홍보관(농촌지원과), 2·3층의 예술문화콘텐츠 스테이션, 야외 공연장(문화예술과)이 조성될 계획으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관광객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